

# 대부도 파크골프장 생활체육시설로 인정받나?

## 박 의원, 법률개정 대표발의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박해철(사진) 국회의원이 최근 대부도 파크골프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회원들의 애환을 청취한 뒤 방법을 찾기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몇 해 전부터 파크골프에 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안산에서도 많은 시민이 건강한 삶과 여가생활을 위해 대부도 파크골프장을 찾아 운동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대부도에 운영중인 파크골프장의 경우 간척지 공공용 임시사용지에 안산시와 농어촌공사의 협의를 통해 임시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의 파크골프장 부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따라 간척지 본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축제, 공연, 전시 시설로 한정되어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에 사

업대상이 농어촌 산업과 문화예술육성을 위해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크골프장'과 같은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와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파악한 박 의원은 지난 3월21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보고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의 사업대상을 기존의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에서 생활체육까지로 확대하는 취지의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그것이다.

향후 개정안이 논의되고 통과된다면 대부도 파크골프장과 같이 기존에 운영중인 농어촌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안산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해철 의원은 "안산시민과 대부동 주민여러분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기실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향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안산시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 대통령 선거 본격 레이스 돌입

5월12일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선거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예전 같으면 여기저기서 플랜카드가 붙은 것만 봐도 마음이 설레었는데 갑자기 이뤄진 선거라서 그런지 조금은 한산한 선거운동이 전망 된다. 대부북동 방아머리 입구에 기호1번과 기호2번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있다. 이곳 대부도의 척박한 상황에서도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운 선거 공약으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다. 이번 새롭게 바뀌는 정권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희망을 부여할지 궁금할 따름이다. 우리 대부도는 뭐가 좋아지고 뭐가 진행 될 것인지 새롭게 궁금해진다. 앞으로 새롭게 당선되는 대통령은, 우리의 민생을 책임지고 우리 대부도의 행복지수를 올릴 수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곳 대부도는 경제생활이 바닥인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민생을 행할 수 있는 후보한테 선거를 하여 대부도가 신명나는 대부도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 대부북동1413과 1414번지 도로 흙탕물 범벅 대부남동 1027-28, 31번지 포도밭 빗물 잠김

### 해결방법 찾아보자 노력

대부북동1413과 1414번지 발 사이에 있는 대부북동 1898 도로가 주변 밭과 주거지역에 비해 형편없이 낮아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관계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고충이 심각하다. 또 대부남동 1027-28, 31번지 포도밭의 경우도 1km 이상 떨어져 있던 대부남동 1041습지가 밭으로 용도변경 되면서 비만 오면 상류에 있던 포도밭이 하류에 있던 습지가 사라지면서 비가 넘쳐 망치기 일쑤다.

대부북동의 경우는 도로를 중심으로 주택과 창고가 들어서면서 매립이 성행했고 도로보다 건물들이 높

게 짓는 관계로 인근 밭에서 흘러나오는 빗물과 함께 비가 그친지 1주일 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도로에 흙탕물이 가득해 마을 주민들이 걸어서 갈 수 없는 도로로 전락해 버렸다.

대부남동의 경우도 상류 포도밭에서 하류 습지까지 자연배수가 되면서 문제없던 것이 중간에 논이 밭으로 복토가 이뤄지고 구거에 관을 묻어 길을 내고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구거의 폭이 좁아진 것도 원인이다.

습지가 사라진 곳에 밭이 조성되고 그 옆으로 조그마한 수로가 전부다 보니 제대로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언제까지 시

가 민민갈등을 그대로 지켜만 볼 것인가”라고 하소연한 뒤 “무분별한 농지매립은 허가제로 바꾸고 매립이 가능한 곳도 반드시 농수로를 확보토록 해야 한다”고 분노를 표했다.

또 “기존 매립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원인제공자가 해결하도록 하고 기존농수로나 농로길을 공익적 차원에서 사용할 경우는 추가 토지사용 승락을 면제해주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건마다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민민갈등이 커지고 있고 사례비 또한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주민들의 불만 목소리다.

이에 대해 대부해양본부 관계자는

“우리도 민민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면서 “현재는 무분별한 농지전용이나 주택건설로 도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자 해결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부도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민민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법개정을 위해 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대부도 지역은 대부분의 시골 마을이 기존 개발지역으로 포위되면서 이같은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하수관과 마을도로에 대한 전수조사 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창 기자

### 이민근 안산시장

## “신안산선 사고, 정부 차원 관리·조속 복구”건의

이민근 시장은 최근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이후 복구가 지연되고 사업 정상화에도 차질이 빚어지자, 주민 불편 장기화를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특별 관리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건의했다.

안산시는 이 시장이 15일 오전 광명시청에서 열린 신안산선 경우 5개 지자체 간담회에 참석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와 조기 복구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발생한 5-2공구 공사 현

장 사고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는 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한 공사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장(안산·광명·화성·안양·시흥)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시민·전문가 참여 정례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정부 특별관리·지원을 통한 조기 복구 ▲지자체 실무협의회 정례화 추진 ▲신안산선 구간 정밀안전진단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태창 기자

## 초 대 합 니 다

아름다운 계절 특별한 행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 모여라! 제13회 대부중고 총동문회 한마음 체육대회

일시 2025년 5월 24일(토) 9:00-16:00 장소 대부중고등학교 운동장



대부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임성훈 010 - 3302 - 6124

사무국장 최인모 010 - 5316 - 0304

행사부장 임은미 010 - 3531 - 9988

후원계좌 : 카카오뱅크 3333-22-8898554 임애정



# 안산시, 스승의날 맞아 모범 보육교직원 표창 및 격려 행사

안산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지역보육  
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안산시는 15일 보육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제44회 스승의날 기념 모범보육교직원 시상식 및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안산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지역보육 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모범 보육 교직원 표창 시상 에 이어 전자 바이올리니스트의 공연 등 축하공연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아이들의 성장과 보육의 가치를 섬세하게 표현한 샌드아트 퍼포먼스는 참석자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더했다.

신은정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보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해주는 보육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의 행사가 모든 보육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연합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해



안산시는 15일 보육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제44회 스승의날 기념 모범보육교직원 시상식 및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의 행사가 모든 보육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연합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은 “오늘의 따뜻한 공연처럼 보육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이 아이들의 삶에 따뜻한 울림을 전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한 분 한 분의 노

력이 모여 ‘아이 키우기 좋은 안산’을 만들어가고 있어 스승의날을 맞아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 안산의 지역봉사단체 ‘따모’ 가정의달 맞아 경로당 방문

어르신 50여 분께 꽃  
화분과 떡, 음료를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실천

안산따뜻한모임봉사단(단장 김연국, 이하 따모)은 9일, 초지동 17단지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 50여 분께 꽃 화분과 떡, 음료를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활동에는 ‘따모’ 소속 신규 및 기존 회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신규 봉사자들을 위한 안산자원봉사센터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따모의 봉사 활동이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해 더 많은 시민이 자원봉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꽃과 선물을 받으며

환한 미소를 보였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채종재 경로당 회장은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주어 고맙다”며, “아버이날의 따뜻한 마음이 더 큰 감동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연국 단장은 “가정의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작은 것이지만 정성 어린 선물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준비한 선물들을 전달했다.

“따모”는 이번 행사를 포함해 분기별로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 환경 정화 활동, 지역 축제 지원 등 다양한 정기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따모” 안산따뜻한모임봉사단 홈페이지 : www.ddamo.kr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따뜻한모임봉사단은 9일, 초지동 17단지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 50여 분께 꽃 화분과 떡, 음료를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김태창 기자

## 市, 독일 아헨특구시와 국제교류 간담회 개최... 기업·기술 분야 협력

독일 아헨특구시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3국의 국경과 인접한 곳 특구시

안산시는 지난 12일 팀 그뤼테마이어 독일 아헨특구시장을 포함한 22명의 대표단과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기업 및 기술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단은 간담회와 함께 안산시 주요 혁신 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관내 기업(주)테스토니 등을 방문했다.

안산시와 아헨특구시는 2019년 4월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공식 체결한 이후, 경제 및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기업 및



안산시는 지난 12일 팀 그뤼테마이어 독일 아헨특구시장을 포함한 22명의 대표단과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기업 및 기술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윤성용 기자

기술 분야 협력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독일 아헨특구시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3국의 국경과 인접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위치한 도시로, 아헨공과대학교(RWTH Aachen University)가 자리한 기술 혁신과 연구의 중심지다. 특히 스타

트업 육성에 대한 활발한 정책과 창업 인프라가 조성돼 유럽 내에서도 기술 창업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팀 그뤼테마이어 아헨특구시장은 “안산시의 산업 생태계와 기술 역량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이번 교류가 안산시와 아헨특구시 간 국제협력

확대의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교류 간담회를 마친 아헨특구시 대표단은 한국 체류 일정을 마무리한 후 오는 16일 독일로 귀국할 예정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봉사방문 감사합니다

△최인모 전 안산시관광협의회장



## 대부도저널 직원 모집

| 모집부문    | 인원 | 자격요건                                                                      |
|---------|----|---------------------------------------------------------------------------|
| 편집국 기자  | 0명 | 경력사항 : 신입/경력(연차무관)<br>학력사항 : 대학(2.3년)졸업 이상<br>기 타 : 대부도 및 안산거주자 우대        |
| 광고/사업국  | 0명 | 경력사항 : 신입/경력(연차무관)<br>학력사항 : 고졸이상<br>기 타 : 1.대부도 및 안산거주자 우대<br>2.차량소지자 우대 |
| 영상제작편집국 | 0명 | 경력사항 : 경력자(영상 제작 편집 가능자)<br>학력사항 : 학력 무관<br>기 타 : 유튜브 제작 경험자 우대           |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1부, 이력서 1부

○ 제출기간 : 채용시까지

○ 대우 : 4대보험 가입, 급여는 연봉 협의 후 결정

○ 제출처 :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서류제출은 직접 내방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

대부도저널(주) 총무국 ☎ 032-880-9994



#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선대위, 출정식 갖고 ‘필승 결의’

##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선거대책위원회(상임선거대책위원장 박해철 국회의원)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12일 백운동 보성상가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박해철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시·도의원들과 시민들이 참석해, 정권교체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박해철 상임선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대선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국민 주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역사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시도와 사법 왜곡으로 헌정 질서를 위협한 세력의 재집권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생 회복과 정의로운 국가

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태형 경기도의원은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 간의 싸움이자,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바로잡을 결정적 기회”라며 “시민의 삶을 회복할 준비된 후보, 실천하는 정치인 이재명만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진 경기도의원은 “불의한 권력자의 헛된 망상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린 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에 이번 선거는 헌정 질서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골목골목 현장에 몰입하는 선거가 되야 할 것”이라고 .

송바우나 전 안산시의회 의장은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켜, 안산과 백운동이 더 많은 예산과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위경맘 김은선 씨는 “이번 대선은 우리 아이들에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선거대책위원회가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12일 백운동 보성상가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이라며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이끌어온 이재명 후보가 엄마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안산시병 선대위는 이날 출정식에서

이번 대선을 ‘국민 대 극우내란세력’의 대결로 규정했다. 선대위는 앞으로 골목골목을 누비는 민생투어를 통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 양문석 의원, 다문화위원장

### 중앙차원에서 다문화 논의 정책협의 통해 현장 지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다문화위원회(위원장 양문석, 사진)는 14일 경기도당 선거연락소에서 수도권 내 주요 다문화 단체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내 다문화가정과 이주민 공동체와의 정책적 연대를 강화하고 포용적 기회 실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다문화위원회 양문석 위원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전준호 경기도당 다문화위원장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다문화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단체는 △안산이주민센터 △국경없는마음 △용인시다문화연합회 △아무르왈즈 △경기북부이주민센터 △와이즈우먼어소시에이션 △구제한동포총연합회 △아리랑예술단 △필리핀독수리봉사협회 △369예술단 △고려인센터 너머 △안산예술단 △EPS코리아 방글라공동체 △오산이주민센터 △자유로운교회난민센터 △아주

나무난민센터로 총 16개 단체다.

다문화공동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들 단체는 협약식에서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용인시다문화연합회 박남숙 회장은 “다문화가족과 이주민들이 사회에 통합되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문석 위원장은 다문화가족과 이주민들이 더불어 잘사는 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추진 △내외국인 간 차별 없는 아동보육 지원 △결혼이주여성 인권보조 강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신고제’ 도입 검토 △미등록 이주아동 학습권 보장 추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학교 급식 추진 △5월 20일 세계인의날의 ‘다문화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정책 협약은 정치권이 다문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다문화단체들과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며 모두가 존중받는 진정한 포용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안산시(을) 상록구 선거연락소 개소식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을) 지역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안산시(을) 상록구 선거연락소 개소식을 14일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태창 기자

## 김현 의원“국민을 위한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후보와 함께 만들 것”

상록구 성포동에 소재한 김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개최된 개소식에서 전·현직 시·도의원을 포함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고문단, 총괄·총무·기획·조직·정책·전략·유세·직능·홍보·법률·청년·여성·장애인·노동·가족뉴스 대응단 등 약 600여명이 참여한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구성돼, 경기도당 선대위 안산시(을) 지역위원회 선대위가 총력 선거 체제로 돌입했음을 공식화 했다.

특히 안산에서 오랜 세월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왔고 참석자 중 최고령인 구덕산 고문이 김현 의원에게 이재명 후보 경기도당 선대위 제3권역(수원, 광명,안산) 상임선대위원장 임명장을

직접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이는 지역 민심과 현안을 반영한 현장 밀착형 선거운동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김현 의원은 “지난 5개월 동안‘내란 우두머리’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에 맞서 국민은 광장에서 빛의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켰다”며 “이제는 압도적 대선승리로 진짜 대한민국을 맞이하자”고 말했다.

이어 “선대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골목골목을 누비며 선거운동에 임해달라”며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 진짜 경기도, 진짜 안산을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다.

앞선 12일에는 성포광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선거의 시작을 알렸다. 출정식에는 김현 의원과 안산시(갑) 양문석 의원, 김남국 전 의원, 선거대책위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

했다.

김현 의원은 “광장의 빛을 이끈 자랑스러운 국민과 우리 안산시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임을 증명할 때”라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희망으로 재도약을 실현시킬 대통령 후보 지금은 이재명과 함께해 달라”했다.

또한, “이번 대선은 우리 안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라며,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과 경기도, 그리고 안산을 위해 헌신할 충직하고 능력이 검증된 준비된 일꾼”이라고

강조했다.

양문석 의원은 “지긋지긋한 내란세력이 사법쿠데타를 통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며 “대한국민이 내란세력을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목)과 30일(금)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되며,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 박 정 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 안산시관광협의회 TF팀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가져

14일 본지 사무실에서  
10여명 참여한 가운데

안산시관광협의회(회장 양운영, 본지 회장)가 14일 대부도저널 회의실(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에서 TF팀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관광협의회 회원 10여명이 참석해 각종 행사와 사업을 앞두고 구성하게 될 TF팀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앞으로 있을 각종 대회나 행사를 관광협의회가 진행할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TF팀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이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안산시 및 경기도와 전국을 무대로 펼쳐질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율이 높고 추진력과 기획력을 겸비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안산시관광협의회 회원들이 14일 대부도저널 회의실에서 TF팀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있다.

김태창 기자

보고 회원 중에서 그런 인물을 추천하기로 했다.

양운영 회장은 “오늘 첫 만남부터

열띤 토론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관광협의회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느낀다”며 “역량 있고 추진력

있는 회원들이 TF팀에 참여해 안산시관광협의회 위상을 높이는데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 원곡동 안산역사 앞 안산역 관광안내소 새롭게 교체



원곡동 안산역사 앞에서 지난 2018년 9월부터 운영해 오던 안산시관광안내소가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교체이전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교체된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 5월9일부터 본격 운영

원곡동 안산역사 앞에서 지난 2018년 9월부터 운영해 오던 안산역 관광안내소(이하 관광안내소)가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관광안내소는 가설건축물에 설치되어 있어 안내소 밖에서만 관광안내를 받아왔는데 지난 5월 9일 정식 건축물 승인과 함께 새롭게 단장을 마치면서부터는 안내소 안에서 잠깐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차별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안내소에는 관광안내사가 항상 대기하고 관광객을 맞고 있다.

관광안내소 부근의 관광지를 구경할 경우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동행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먼 거리 관광지를 해설사 지원 받으려면 사전에 예약을 해야 가능하다.

예를 들면 안산역 관광안내소에서는 원곡동 다문화거리 해설을 받고자 할 경우 동행해서 안내할 수 있고 방아머리에 있는 대부도 관광안내소의 경우는 방아머리 해변, 대부바다항기 테마파크, 시화나래휴게소 까지 동행해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산시 관광안내소 안산역과 대부도 안내소 운영시간은 3월부터 10월 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고 11월부터 2월까지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안산역 관광안내소 관계자는 “그동안 안산역사 앞에 있던 관광안내소가

낡고 비좁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새롭게 교체한 만큼 많은 관광객

들이 편하게 안내소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 비가와도 선거운동은 계속된다

대부동협의회 당원들의 모습이다. 비가오는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림없이 '이재명'을 외치는 모습에서 결기를 느끼게 한다. 김태창 기자

15일 북동성거리 부근 만쿠나 생활용품점 앞에서 거리선거운동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 경기창작캠퍼스와 목조건축 세미나 시작

경기창작캠퍼스와 함께하는 목조건축 세미나가 경기창작캠퍼스 선강생활동 2층 세미나실에서 5월10일부터 시작해 오는 11월 15일까지 계속된다.

접수는 지난 4월3일부터 받았지만 오는 11월13일까지 계속 받는다.

세미나는 △5월10일 목조건물 원가 아십니까? △6월21일 목조건축 결로, 단열 어떤가요? △8월16일 목조건축 얼마예요? △9월20일 목조건축 재료는 어디서 사나요? △10월18일 목조건축 관리 어떻게 하나요? △11월15일 목조건축 및 좀 볼까요?(4m×6m 제작 워크숍)이다.

세미나 시간은 매 강의당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이다.

참여비용은 매 회당 1만5천원이고 경기문화재단 온라인플랫폼 '지지씨엠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대부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한마음 체육대회 펼쳐진다

오는 24일 토요일 오전 9시  
본교 운동장에서

“아름다운 계절 특별한 행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13회 대부중·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임성훈, 이하 총동문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오는 2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부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개회식은 오전 10시에 열린다. 총동문회는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부도 관내 주요 인사를 찾아가 체육대회 참석

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체육대회는 총동문회 임성훈 회장, 최인모 사무국장, 임은미 행사부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준비하고 있다.

총동문회 체육대회를 후원하고자 하는 분은 후원계좌(카카오뱅크 3333-22-8898554 임애정)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대부중학교는 1958년 개교했고 대부고등학교는 1977년 개교했으며 2024년 현재 대부중학교는 5,22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대부고등학교는 2,96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제13회 대부중·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임성훈, 이하 총동문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오는 2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부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은 하늘에서 바라본 대부중·고등학교 교정 모습이다. 사진은 하늘에서 바라본 대부중·고등학교 교정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 市, 대부도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선착순 모집

방아머리해변 대송습지  
갯벌생태학교 철새탐조  
프로그램 선착순 접수

안산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대부도를 체험할 수 있는 '방아머리해변 갯벌생태학교'와 '대송습지 철새탐조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아머리해변 갯벌생태학교는 생태계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생태계 보전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서는 갯벌에 살고 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방아머리 해변에서 플로깅 활동을 병행한다. 자원봉사시간 1시간도 함께 부여된다.

12일 접수를 시작한 이번 프로

램은 15명 이내로 선착순 마감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오는 18일에 첫 프로그램을 시작해 오는 8월까지 총 26회 프로그램(6월~8월까지 회차당 2회씩 진행)이 운영된다.

아울러, 시는 130여 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서해안 최대 습지인 '대부도 대송습지 철새탐조' 프로그램 참여자도 함께 모집한다. 프로그램에서는 광활한 습지를 구경하고, 습지에 서식하는 철새의 생태를 필드스코프와 쌍안경을 이용해 관찰하고 기록한다.

대송습지 생태관광 탐조활동은 오는 17일을 시작으로 9월과 10월, 12월까지 총 17회 운영할 예정이다. 모집은 15명 이내로 선착순 마감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안산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대부도를 체험할 수 있는 '방아머리해변 갯벌생태학교'와 '대송습지 철새탐조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선화 기자



# 다문화봉사단체 ‘신작로’ 출범 1주년 맞아 행사 가져

9일 한양대 에리카컨벤션 11층에서 시상식도 함께

다문화봉사단으로 유명한 신작로(의장 강성구)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9일 한양대 에리카 컨벤션 11층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지난해 5월 45명으로 창단한 ‘신작로’는 그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신작로 길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이번 출범 1주년을 맞이해서는 모두 17개국 235명이 활동하는 여럿한 봉사단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신작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문화인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은 물론, 독거노인과 아동 및 청소년과 장애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또 시내 곳곳의 환경정화 활동과 함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꿈을 키우



다문화봉사단으로 유명한 신작로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9일 한양대 에리카 컨벤션 11층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있는 가운데 강성구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등 다문화 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기부와 나눔으로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유공자 표창과 함께 축하공연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이민군 시장과

주요 정치인 등도 귀빈으로 참석해 출범 1주년을 빛냈다.

강성구 의장은 인사말에서 “17개국 235명의 다문화인들과 함께 후원과 재능기부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

다”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디지만 신작로의 큰길을 가고 있는 봉사단체답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안산시건강기협회, 市에 쌀 전달 건강한 나눔 실천

‘함께 꿈꾸는 세상’에 기부  
오세진 회장 “많은 시민  
건강에 동참하도록 노력”

안산시건강기협회(회장 오세진)는 12일 장애인 복지시설 ‘함께 꿈꾸는 세상’(상록구 사동)에 기부할 쌀 300kg을 안산시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기부 전달식과 함께 오세진 안산시건강기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도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건강기협회의 활동 현황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안산시건강기협회는 현재 7개 클럽에서 15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협회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

키고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해 걷기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도 함께 실천하고 있다.

오세진 회장은 “더 많은 시민이 걷기의 즐거움과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안산시와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군 시장은 “안산시건강기협회와 시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며 “매 걸음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키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건강기협회가 12일 장애인 복지시설 ‘함께 꿈꾸는 세상’(상록구 사동)에 기부할 쌀 300kg을 안산시청에서 市에 전달하고 이민군 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면서 사랑의 하트를 던지고 있다.

선택 지원을 하며 총 20개사를 지원한다.

‘인쇄기반 스타상품 개발 지원사업’은 고양시의 전통·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 각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브랜드화로 B2C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최대 500만원, 총 5개사를 지원한다.

4가지 지원사업 모두 업종코드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에 해

당하고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인쇄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5월 21일 17시까지이며,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goyanghubcenter.or.kr](http://goyanghubcenter.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고양소공인센터(031-913-9403, 031-922-4351)로 하면 된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 안산대학교 치위생학과 오스템 임플란트 기업직무탐방

오스템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록한 전문기업

안산대학교 치위생학과(학과장 전수경)는 지난 9일, 산학협약 체결한 글로벌 치과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를 방문해 기업 직무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를 기록한 글로벌 치과 전문 기업으로 임플란트뿐 아니라 치과용 장비, 소프트웨어, 교육 서비스 등 디지털 덴티스트리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직무 탐방은 치과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기업 소개 및

주요 직무 설명, 제품 전시관 견학, 그리고 연구개발(R&D) 부서와 생산 라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오스템에서 운영하는 실습 체험 공간인 ‘오스템 핸드온(Hand-On)’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제 치과 진료 장비인 구강 스캐너를 직접 사용해 3D 구강 데이터를 스캔하는 실습을 진행했으며, 최신 디지털 치과 기술을 체험함으로써 임상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직무 설명회에서는 오스템 소속 치위생사 및 관련 부서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회사의 핵심 가치, 직무별 역할, 산업 트렌드 등을 상세히 소개했으며,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질적인 진로 조언을 제공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경기TP 고양소공인센터, 인쇄소공인 위한 2025년 지원사업 본격 추진

협업제품제작지원,  
마케팅 빌드업 지원,  
소공인 경영·기술닥터,  
인쇄기반 스타상품 개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가 운영하는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고양소공인센터)는 4월 30일 고양시 장항동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에서 ‘2025년 인쇄소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4개 분야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고양시 인쇄 집적지 내 인쇄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구성된 것으로, ▲협업제품제작지원 ▲마케팅 빌드업 지원 ▲소공인 경영·기술닥터 지원 ▲인쇄기반 스타상품 개발 총 4가지로

구성됐다.

‘협업제품제작지원 사업’은 인쇄소공인 간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 제품을 공동 개발 및 제작하고 신규 거래처 발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기업당 최대 300만원, 총 15개사를 지원한다.

‘마케팅 빌드업 지원 사업’은 집적지 내 인쇄소공인의 온라인 및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 획득,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7개사에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소공인 경영·기술닥터 사업’은 인쇄소공인의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소공인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컨설팅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업에 1회당 4시간 이내, 최대 4회까지 컨

##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대표 유재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TEL. 032.886.1817 M. 010-3433-4635

측량(경계, 현황, 분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입목조사, 입목벌채허가, 복구설계, 재해위험성 검토)  
형질변경, 토목설계(토목4구조계산),  
토목시공(매립, 보강토, 옹벽, 토지 절, 성토)  
도로 점 사용허가, 사도개설,  
성장관리 계획구역 검토 및 자문, 각종 민원처리



신안1단지 입대의, 본오2동에 성금 100만원 기탁



상록구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는 13일 본오동 신안1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성금 1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신안1단지 동대표 23인이 주위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는 이웃들을 보살피고 발굴하면서 따뜻하게 대하기 위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

로도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동대표 23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우 본오2동장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번 신안1단지 아파트 동대표 23인의 기탁에 감사드린다”며 전했다.

또 “여러분께서 전달해주신 따뜻한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양운영 기자  
debor7@naver.com

선부2동 지사협, 고립 중장년 지원 사업 교육



단원구 선부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중장년 발굴·지원사업인 ‘함께하니, 홀로서니’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사전교육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추진하는 선부2동 지사협 특화사업인 ‘함께하니, 홀로서니’ 사업은 중장년층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서적·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안부확인 ▲생활개선지원(동행장보기 및

외출유도형 쿠폰지원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선부종합사회복지관 연계)이 포함되어 있다.

유병석 민간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사협이 그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윤희 선부2동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성포동 지사협, 달콤한 행복 과일 나눔 사업 진행



상록구 성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20가구에 ‘달콤한 행복 과일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치솟는 과일 가격에 취약계층의 가정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성포동 지사협 위원들은 독거노인 및 한부모가정에 방울토마토, 오렌지, 참외, 바나나 등 과일과 함께 달콤한 행복을 담아 전달했다.

이번 나눔 사업은 그동안 지역사회 주민들이 경기도공동모금회 CMS 계좌로 정기후원한 소중한 성금으로 마

련했다.

홍경희 민간위원장은 “과일 가격도 부담인 경제 상황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 저소득 가정에도 달콤한 행복이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과일 꾸러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승희 성포동장은 “건강한 먹거리 나눔을 준비해 주신 지사협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좋은 성포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한울공예디자인, 신길동에 출생축하용품 기탁



단원구 신길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여성기업인 한울공예디자인으로 부터 출산 가정을 위한 출생축하용품(핸드메이드 수면조끼,턱받이,모자) 15세트를 기탁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한울공예디자인(대표 한명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기반으로 섬유 공예 작가인 경력 단절 여성들이 힘을 모아 창업한 여성기업이며, 그간 출생아들을 위한 배냇저고리, 모자, 턱받이, 목욕 타올 등을 제작해 여러 기관에 지속해서 나눔을 실천했다.

한명자 대표는“가정의 달을 맞아 염

마가 된 산모를 응원하고 태어난 소중한 생명을 축하하고 싶었다”며 “작은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출생을 축하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인 신길동장은 “아기들의 첫 순간을 축하하는 정성 어린 선물을 보내주신 한울공예디자인 대표와 임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출생축하 용품은 출생신고 가정과 출산 예정인 임산부들을 중심으로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일동 “슬기로운 실버 생활을 응원합니다”



상록구 일동 행복마을관리소는 5월부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서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키오스크(무인주문기) 사용법과 스마트폰 활용법 교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찾아가는 키오스크 사용법 자신감 있는 실버 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맞춤형 스마트폰 활용법 교육은 간단한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와 편집 등은 물론 폰뱅킹,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 이용법 등 수강자의 요구를 반영한 1:1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5월 한 달간은 시범적으로 관내 경로당 4개소에 주 1회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6월부터는 행복마을관리소 방문 주민, 주민 이동이 많은 공원 등으로 찾아가 교육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혜숙 일동장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디지털 기기 사용에 서툰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중앙동 자율방재단, 여름철 대비 배수로 정비



단원구 중앙동 자율방재단은 지난 9일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우려를 예방하고자 배수로 정비 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비 활동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원활한 배수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로와 빗물받이에 쌓인 낙엽과 쓰레기 제거에 집중해서 추진했다.

배수로와 빗물받이에는 낙엽과 쓰레기 외에도 담배꽂초 등 갖가지 쓰레기가 쌓여있어 이번만이 아닌 자주

청소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다.

박현숙 자율방재단 대표는 “정기적인 점검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방재활동을 자율방재단은 물론 주민들과도 연계해 꾸준히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미라 중앙동장은 “자연 재난의 사전 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자율방재단에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편안한 일상과 안전한 중앙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25년 경력 간판 제작 설치 전문업체

Led채널. 특수제작간판. 썬팅. 현수막. 명함. 판촉물

mi-re  
enterprise

미레기획

대표 이병철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133(대부북동) ☎ 010.9366.9699



“갯벌이 살아 숨쉬는 청정지역 대부도”  
 “미네랄이 풍부하고 황토로 구워 만든”  
 “쓴 맛이 없고, 오직 단맛으로 음식의 풍미를 높이는”

## 동주염전 소금



소금지기 생산자 (동주염전2구) 김관중

M. 010-9080-1195

토판 소금 / 일반 천일염 / 송하소금 판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부흥 127-1

# 세무사 최육진

최적의 세무사, 최상의 경력과 경험

국세청 32년 경력

조사 14년 / 감사 8년  
 세원관리 6년 / 불복업무 등 4년

퇴직 전 5년

안산세무서 조사과장 퇴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팀장  
 안양세무서 개인납세과장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육진 세무회계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28,201호 (본오동, 보노피아빌딩)  
 (TEL) 031-8042-6670 (FAX) 0507-1799-3480  
 (E-MAIL) cujtax0522@naver.com

고객 여러분의 파트너로서  
 핵심업무에 경력과 경험을 갖추고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있습니다

### ☑ 더불어 성장하는 세무 도움

- 매입,매출 정리 등 장부 기장 대행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 대행
- 직원 급여 관리 (4대보험 등)
- 경영 컨설팅 (세액 감면/ 공제)

### ☑ 재산 이전 고민해결 컨설팅

- 양도/ 상속/ 증여
- 사전 증여 등 부의 이전 컨설팅
- 주식 이전 (주식 평가 등)

### ☑ 억울한 세금 해결하는 불복 업무

- 고지 전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 고지 후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납세자 고충 (민원신청)

### ☑ 조사 등 세무간섭에 대한 대응

- 세무조사에 대한 업무 대행
- 과세자료 해명 요청에 대한 대응
-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경정청구)



# 섬 주민 위한 ‘웅진군민 전용 여객선 매표창구’

오는 5월 17일부터 운영

웅진군(군수 문경복)과 고려고속훼리(주)는 「인천 -바다패스」 시행으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여객선표 발권 혼잡을 완화하고 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내 ‘웅진군민 전용 매표창구’를 개설해 오는 5월 17일부터 운영한다.

「인천 -바다패스」 시행으로 인해 관광객 수요가 급증하면서, 섬 주민들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웅진군과 고려고속훼리(주)는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도서 주민만을 위한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웅진 군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표를 발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웅진군 주민들은



웅진군과 고려고속훼리(주)는「인천 -바다패스」시행으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여객선표 발권 혼잡을 완화하고 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인천항연안 여객터미널 내 ‘웅진군민 전용 매표창구’를 개설해 오는 5월 17일부터 운영한다. 김태창 기자

별도의 대기 없이 전용 창구를 이용해 매표가 가능해졌다.

웅진군은 “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여객선을 이용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 2025년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지원사업 본격 추진

2023년 5,300만원,  
2024년 2,900만원 지원  
2025년 3,400만원 계획

웅진군은 2025년도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전체 172.97㎢ 면적 중 임야가 70%를 차지하는 웅진군은 각종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각 종 조류)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매년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매년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을 주민들에게 지원하

고 있으며, 지난 2023년 5,300만원, 2024년 2,9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3,400만원의 예산으로 19명의 주민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새 방조망과 멧돼지, 고라니 등의 방지를 위한 철선 울타리이며 지원대상자는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이후 군 보조금 및 자부담을 포함하여 피해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급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032-899-2614)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웅진군은 2025년도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희재 기자

##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위해 산란시설물 50만개 설치



웅진군은 12일, 주꾸미 금어기(5월 11일~20일)를 맞아 10일간 덕적·자월 연안 해역에 주꾸미 산란 및 성육에 적합한 산란시설물(피뿔고둥) 50만 개를 설치한다. 이선화 기자

피로 해소와 간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수온 변화, 남획, 서식지 훼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주꾸미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

라며, “이번 산란·서식장 조성이 주꾸미 자원 회복과 지역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 섬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따뜻한 진료 웅진군·가천대길병원 대이작도 무료진료

웅진군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천대길병원과 협력하여 5월 14일 대이작도를 찾아 무료진료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찾아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상담을 비롯해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한 침 치료, 건강상태 체크 등 다양한 진료가 이뤄졌으며, 진료 후에는 직접 약을 처방·제공해 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이작도는 의료기관이 없어 평소

보건진료소를 통해 간단한 진료만 제공받는 의료취약지역으로,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찾아와 진행한 이번 진료는 주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됐다.

웅진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 누구나 공평하게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진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진료를 통해 주민 곁에 항상 가까이 있는 보건 의료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양윤영 기자 debora7@naver.com

### 덕적·자월 연안 해역 주꾸미 자원 생산거점 육성 및 개발

웅진군은 12일, 주꾸미 금어기(5월 11일~20일)를 맞아 10일간 덕적·자월 연안 해역에 주꾸미 산란 및 성육에 적합한 산란시설물(피뿔고둥) 50만 개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란장 조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8일, 자월면 해역에 포란된 어미 주꾸미 1.7톤을 방류했

며, 산란장 조성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증명할 수 있는 인입물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웅진군은 지난해에도 이작, 소이작, 승봉, 덕적, 자월 5개 해역(1,000ha)에 피뿔고둥을 활용한 산란 시설물 45만 개를 설치하며 수산자원 회복에 힘써왔다.

주꾸미는 수명이 약 1년 내외인 단명성 어종으로, 단백질, 철분, 타우린, 칼슘, 비타민B12 등 영양소가 풍부해

## 덕적면, 죽노골 해변 해양환경정화 ‘클린업데이’실시

웅진군 덕적면(면장 김남우)은 지난 14일, 소야리 죽노골 해변 일대에서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클린업데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면 직원과 이장단, 일자리 참여자 등 약 4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본격적인 해양 쓰레기 수거에 나섰으며, 플라스틱, 폐어구, 생활쓰레기 등 약 5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했다.

김남우 덕적면장은 “소야도는 지리적 특성상 해양 쓰레기가 쉽게 유입되고 쌓이는 지역으로, 주민들과 방문객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클린업데이를 통해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해병대 선후배님들의 지역 모임입니다  
해병대 신입대원을 찾습니다

대부전우회 회장 최영휘 010-3755-5859

대부전우회 사무국장 임준채 010-3731-4754



# 도의회 김진경 의장, 13일 위안부 피해자 故 이옥선 할머니 조문

“진정한 사과와 온전한 명예 회복의 꿈 이어갈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이옥선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용인 실낙원 경기장례식장을 찾아 분향한 뒤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조문록에 “진정한 사과, 온전한 명예 회복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영면하소서”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조문 이후 “이 할머니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여섯 분밖에 남지 않으셨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이분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이옥선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용인 실낙원 경기장례식장을 찾아 분향한 뒤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했다.

또, “경기도의회는 청사 1층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고 매년 현화하며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을 위

한 의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

공모는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환경부(장관 김완섭),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차 협의체(경기도·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를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

4차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년 3월 28일~6월 25일)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5월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하여 이를 확정했다.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등이 참여해 수도권 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하고 있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4차 협의체에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첫째,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기반시설을 포함한 매립시설 40만㎡, 부대시설 10만㎡)으로 대폭 줄였다.

면적 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기반시설 등을 별도로 하고 실제 매립 가능한 용량 기준)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응모 문호를 확대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셋째,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해 필수요건으로 제시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차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4차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이번 4차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주변 지역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경기도교육청 ‘2025 스승의 날 맞이 상호존중 학교문화 페스타’ 개최

임태희 교육감 “교육구성원 모두가 소중한 존재”  
상호존중 약속으로  
스승의 날 의미를 더하다

경기도교육청이 15일 수원외국어고등학교(학교장 박정숙)에서 ‘조화 속의 존중(Respect in Harmony)’이란 주제로 ‘2025 스승의 날 맞이 상호존중 학교문화 페스타’를 개최했다.

‘2025 스승의 날 맞이 상호존중 학교문화 페스타’는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의 가치를 되새기며 스승의 날의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수원외고는 2025년 경기도교육청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자율 운영교’로 선정되어 존중과 협력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행사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



경기도교육청이 15일 수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조화 속의 존중(Respect in Harmony)’이란 주제로 ‘2025 스승의 날 맞이 상호존중 학교문화 페스타’를 개최하고 있다.

원외고 학생 관현악단의 스승의 날 축하 연주로 시작했다.

특히 ▲교육공동체 존중의 약속 다국어 선포식(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 ▲공정의 메시지를 담은 ‘존중 나무(Respect Tree)’ 나눔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상호존중 사진전’ ▲교육감과 함께하

는 소통과 공감 정담회 ▲학생회 주관 ‘버스킹’ 공연 등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운영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중·고 54교를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자율 운영교’로 선정해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학교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인격적 주체로서 공동체 속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오늘 수원의 고의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약속이 경기도 모든 학교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도심속의 힐링 장소!!

남녀노소 편안하게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

등대바다낚시터, 대부바다낚시터,  
독도바다낚시터, 어심바다낚시터,  
하늘바다낚시터, 해솔바다낚시터,  
서해바다낚시터, 케이쓰리바다낚시터

안산지부



사단법인  
한국바다낚시업연합회



# ‘낙시3법 개정과 낙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낙시정책 국회포럼’ 개최

‘낙시3법 개정과 낙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낙시정책 국회포럼’이 5월8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국회의원 김승수·김형동·정희용이 공동주최했고 사단법인 한국낙시협회가 주관했다.

좌장은 이덕화(해양수산부 홍보대사) 탈랜트가 맡았다.

발제에는 △서성모 한국 낙시정책 문화연구소장(낙시 3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과 △박강섭 전 청와대 관광진흥 비서관(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레저 진흥의 관광자원 치트키, 낙시)이 나섰다.

토론자로선 △김범철 (강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신태상(환경부 하천계획과장) △백하림(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 △서정은 (코믹메이플스토리 작가) △김옥(낙시하는 시민연대 대표) △이광윤(문체부 국내관광 진흥과 서기관)이 참여했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지역경제와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 할 관광자원으로서 낙시의 가치를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낙시 진흥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낙시 3법 개정과 낙시관광활성화를 위한 낙시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하게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사단법인 한국낙시협회 김오영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좌장을 맡아주신 이덕화 해양수산부 홍보대사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서성모 한국낙시정책문화소장님, 박강섭 전 청와대 관광진흥 비서관님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어주시 김범철 강원대 명예교수님, 백하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님, 김옥 낙시하는 시민연합 대표님, 신태상 환경부 하천계획과장님, 서정은 작가님, 이광윤 문체부 국

## 5월8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승수 · 김형동 · 정희용 의원 공동주최 (사)한국낙시협회 주관 좌장은 이덕화(탈랜트) 해양수산부 홍보대사가 맡아서 진행



국회의원 김승수·김형동·정희용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낙시협회가 주관한 ‘낙시3법 개정과 낙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낙시정책 국회포럼’이 5월8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내관광진흥과 서기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관련 정책과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민관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낙시관광과 생태계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저 역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회포럼을 주관한 한국낙시협회 김오영 회장도 인사말을 이어갔다.

김 회장은 “먼저 오늘 낙시업계가 염원하고 있는 낙시 3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낙시관광 활성화 정책 논의를 위해 이렇게 국회에서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된 데에 대해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말문을 연 뒤 “낙시계로 보서는 너무도 필요한 자리이기에 절실하고 절박하며, 현재 맞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한편으로는 설레인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자리에 계신 해양수산부 홍보대사이신 이덕화님은 저와는 형·동생으로 부르며 오랜시간 친분

을 나눴은 사이로 아시다시피 도시어부를 통해서 전국에 낙시 열풍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인 이덕화 님이 어느날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낙시경기가 아주 안좋다며? 네 맞습니다. 이러다간 붕괴위기에 봉착한다는 게 낙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라고 대화를 나눈적이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그 원인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낙시금지(통제) 구역 때문입니다. 전국 낙시인의 1/4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은 물론 웬만한 저수지와 하천이 낙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로 코 앞에 있는 호수를 두고 멀리 충청도로 남도로 낙시를 가야하는 현실에서 낙시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또 낙시인이 늘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소연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수변의 가치가 올라가 이제 낙시인 외에도 많은 국민이 물가를 찾길 원합니다. 낙시인도 국민과 함께 수변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낙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이 오가고 아울러 정책과 제도를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낙시3법이란 무엇인가?

낙시3법이란 말을 처음 듣는 분은 고개를 갸웃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낙시3법이란? 낙시관련 ‘법규’ 즉 낙시 조문(條文)이 있는 법을 말한다.

여기서는 낙시계가 지난 2024년 8월 김승수 의원을 통해 대표발의한 낙시관련 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이렇게 세 세 가지 법안의 개정안을 뜻한다.

낙시관련 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등 각 법안에 낙시를 규제할 수 있는 조문이 있다.

불행하게도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각 법안은 낙시를 규제할 수 있는 조문을 전용하는 일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낙시금지(통제) 구역이 확산됐으며 이로 인해서 낙시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낙시산업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낙시 3법의 낙시 규제 조문은 대부분 20여 년 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낡은 법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맞은 현재와 맞지 않으며 보완과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 발제는 낙시 3법을 통해 낙시금지(통제)구역이 본격적으로 확산됐던 2019년을 중심으로 낙시계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들여다보고, 이를 토대로 낙시 3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기 위해 준비 한 것이다.

또 낙시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낙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낙시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바라는 낙시계의 절박함을, 행사장을 찾은 정관계 인사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도와주실 것을 호소하는 자리였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 해양레저관광분야 협회와 단체 국회에서 간담회 열려

## 14일 국회의원 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주철현 의원과 해양수산부 주최로

해양레저관광분야 협·단체 간담회가 5월14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217호)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은 주철현 의원,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장 및 담당), 해양레저관광분야 협·단체, 마린나,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레저스포츠, 해양치유, 크루즈, 어촌관광, 낙시관련, 레저동우회, 관련 단체, 협회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주철현 국회의원과의 해양수산부가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가진 이유는 해양레저 관광진흥법 시행(2025.1.31)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업계 애로사항 및 해양레저관광협회 설립 추진 관련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주요 논의사항은 해양레저관광 분야 협·단체 애로사항, 건의사항, 논의 및 해양레저 관광협회 설립 관련 업

계의견 수렴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특수법인 <해양레저관광협회>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 배경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제도가 존재하지만, 업계의 수요에 기반한 해양레저관광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크루즈산업법(15.2), 수중레저법(17.5), 해양치유법(21.2), 해양레저산업진흥법(25.1) 등이 그것이다.

규제개선 및 정책 개발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정부 및 지자체와 업계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주체의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해양레저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제안,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레저 관광협회 설립을 추진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근거법령으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24.1.30. 제정 25.1.31. 시행)을 통해 해양 레저관광협회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고 논의됐다.

해양레저관광협회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25.1 시행)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인가를 받아 특수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책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다.

이날은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설립되는 부분에 각 업계의 대표들이 모인 만큼 예민한 부분도 많았다.

주철현 의원은 “지금 시작할 때부터 오늘 간담회에 빠진 업계대표들도 다시 초대해서 하나 하나를 꼼꼼하게 검토해서 한목소리를 내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각 업계 대표들은 업계가 변화해야하고 해양산업이 발전하는 것에는 모두 좋아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얻어진 주요 결



주철현 의원과 해양수산부 주최로 14일 국회의원 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해양레저관광분야 협회와 단체 국회에서 간담회’가 열렸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과물을 정리하면 해양레저관광협회를 추진하는 향후계획으로 특수법인 해양레저관광협회 설립인가를 해서 2026년도 예산(연구,교육,훈련,홍보 등) 확보를 추진 한다고 했다.

해양레저관광협회를 통해서 해양업

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거론됐다.

이날 협회는 아니지만 단체자격으로 해양레저 스포츠 동우회인 레저보트매니아도 참석해 간담회 분위기에 함께 했다.

이날 레저보트 동우회 김명철 매니저는 간담회 말미에 “앞으로 낙시를 하는 데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낙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6회] 총각 선생님이 대부도로 오게 된 사연



晴境(청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부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2018년 7월 1960년대 섬마을 선생  
님 노래 배경지 주변 환경을 조사하  
던 중 중부흥과 고랫부리의 섬색시 3  
명이 총각 선생님과 결혼한 것을 알  
게 되었다. 서강훈 선생님은 수영목의  
이춘자 섬색시, 박형원 선생님은 각근  
재의 양추자 섬색시, 탁용 선생님은  
명골의 이옥화 섬색시와 결혼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세 분의 총각 선생  
님 중 누가 서울에서 왔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경로당의 마을 어른과 졸업생,  
총각 선생님과 섬색시의 증언을 듣고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 선생님 중 서강훈 선생님이 서울  
에서 대부도로 왔다. 이 섬으로 오게  
된 사연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한 시  
대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다.

서강훈 선생님은 1937년 6월 일제  
강점기에 서울 종로 행촌동에서 태어  
났다. 그 어려운 시절에 아버님은 종  
로에서 큰 한의원(韓醫院)을 운영하  
여 부유하게 살았다. 그러던 중 1945

년 광복 1년 전 가정에 큰 불행이 닥

친다. 아버지께서 종로경찰서에서 돌  
아가신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지만 만주를 자주 왕래하였는데 독립  
군 자금책이었던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마을에 더 살 수 없었다. 이사 갈  
곳을 수소문하니 서울에서 가까운 섬  
대부도, 그중에서 '남리(南里)'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하여 1944년 중부흥 느  
릿뿌리 마을에 이사(移徙)를 오게 되  
었고, 이곳 마을 사람의 권유로 많은  
토지와 집을 사게 되었다.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어린이들과 섬으로 이주  
해서 겪었을 어려움을 너무나 컸을  
것이다. 이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  
람이 마을 유지(有志: 부천군당협 부  
위원장 역임)였던 이춘자 부모님이었  
다고 한다.

이때의 서강훈은 7살 어린 나이로  
초등학교에 다녀야 했기 때문에 대부  
초등학교에 몇 년간 다니다가 광복  
후 서울 행촌동 집으로 되돌아가 초  
등학교를 졸업한 후 1950년 6.25 사  
변과 피난 생활을 겪으며 1955년 서  
울 청운중학교를 졸업한다. 선생님의  
집안은 군벌명문가(軍閥名門家)였다.  
집에서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  
님은 “보다 안전한 국민학교(國民學  
校) 선생님이 되는 게 좋으니, 사범학  
교 진학을 원한다고” 하였다. 그해 서  
울사범학교는 너무 경쟁률이 높아 그  
보다 조금 약한 인천사범학교 본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1958년 인천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발령이 난다고 하여, 서울 소재  
경기도청 별관 문교사회국에 갔더니,



서강훈 선생님의 출생지와 졸업 중학교

NAVER MAP 캡처



섬마을 선생님 기념비 앞에서

연천군의 학교 발령장을 주어 '멀어서  
못 가겠다. 사표를 내고 가겠다'고 하  
였다. 장학사가 이력서를 살펴보니  
“대부도에는 가겠냐고” 의사타진(意  
思打診)을 하였다. 그 섬에는 살던  
집과 토지가 있어 그러겠다고 하여,  
대부초등학교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다. 그 후 학생이 증가하여 1960

년 6월 대부초등학교 대남분교(大南  
分校) 개교(開校)로 3학급의 분교장  
(分校長)으로 부임하였다. 대남분교  
는 대부도에서 가장 외진 곳이라 희  
망 교사(敎師)가 없어 분교 근처에 거  
주하는 서강훈 선생님이 가게 되었고,  
1961년 4월에 6학급 인가(認可)로 대  
남초등학교에 계속 근무하게 된다.

### 데스크 칼럼

## 대부도, 민민갈등 해소를 위한 하수관 전수조사 필요



김태창  
편집국장

대부도의 민민갈등은 주로 도로  
옆 토지의 용도변경과 하수관, 수  
도관, 도시가스관 등의 설치 문제  
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도로 지반  
이 낮아지고 택지나 밭의 지반이  
높아지면서, 도로가 항상 침수되고  
흙탕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한, 농수로 하류의 막  
힘으로 인해 상류 포도밭에 빗물  
이 차 포도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  
부해양본부는 하수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상류 물빠짐을 방해  
하는 하류에서의 복토나 용도변경  
을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필  
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해야 한다.

대부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  
해서는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해양본부  
는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  
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부도는  
더 이상 민민갈등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지  
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안산시장은 안산 대부도 인구 5  
만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콘 소  
리로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못하고  
말뿐인 허울에 그치고 있어 안타

깝다.

대부도는 안산시 재정이 열악해  
재정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인구를  
유입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민간투자자본(이하 민투)을 유치  
하는 길만이 대부도 인구를 늘릴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그렇다면 대부도에 민투가 활성화  
되고 있는가.

대부도에 투자하기 위해 대부해  
양본부 대부개발과를 방문한 많은  
투자자들이 대부도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해보려고 하면 하지 말라거나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 대부도는 투  
자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다.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만  
놓은 꼴”이라는 게 민투 관계자들의  
불만이다.

사유지 도로주인이 도로사용승  
락을 해주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 토지  
주도 할 말은 있다.

“서울양반들이 대부도 땅을 사서  
담장을 쌓고 펜스를 쳐서 우리도  
담장을 쌓고 펜스를 치는 것”이라  
면서 “우리가 서울양반들한테 배  
워서 알지 어떻게 알았겠는가”하  
고 반문한다.

그러면서 시에도 불만이 많다. 밀  
짚하던 도로가 지금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무원들  
이 도로 옆에 집을 짓는다고 해도  
허가를 내주고, 눈을 받으로 만든  
다고 해도 허가를 내줘 지금은 도  
로가 저 아래 있기 때문에 비만 오  
면 운동장이 되어 버린다”는 주장  
이다.

공무원들의 민민갈등 조정노력  
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것만으로 힘들다면 관련법 개  
정도 요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위원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  
야 한다.

대부도는 민투가 활발하게 일어  
나야지만 발전할 수 있고 인구도  
늘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바다낙시업연합회

바다낙시업의 활성화와  
바다낙시인의 안전한 힐링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바다낙시업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바다낙시업연합회 회장 조부형





# 대부도펜션타운

365일 예약센터 운영  
T. 1588-1934

About

대부도 펜션타운

e-mart24

이마트24

숙, 불판과 다양한  
먹거리, 생필품, 폭죽, 얼음, 여행 준비물 등  
없는거 빼고 다 있는 단지 내 이마트24

이디야 커피

바다전망의 쾌적한 이디야 커피 입점

인조잔디 풋살장

가로20M 세로40M 정식 인조잔디 풋살장 완비  
운동회 및 각종 야외행사 진행도 가능하며,  
필요한 각종 용품은 무료로 대여해드립니다.

세미나실

원활한 세미나 진행을 위한 빔프로젝터,  
중앙강연대, 정수기, 화장실 등 쾌적한  
워크샵 환경을 위한 세미나실 완비

배달BBQ

펜션 전용 바비큐장에서 열리는  
바비큐 파티가 전화 한통이면 OK!  
펜션으로 바비큐 세트를 배달해드립니다!

국내최대, 국내 최초

대부도 대표 풀빌라 펜션단지!

Daebudo Pension Town

대표 양 운영